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새로 건설한 평양강냉이가공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 1번에서 계속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평양강냉이가공공장건설에서 자기들의 열정과 애정을 아낌없이 바친 평양시민들과 공장현대화에 크게 이바지한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평양기계종합대학, 한덕수평양경공업 종합대학의 일군들, 교원, 연구사들의

현대적인 강냉이가공공장을 건설하여 인민들이 그 덕을 보게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높은 강냉이가공품을 보내줌으로써 위대한 수령님들의 뜨거운 인민사랑을 길이 빛내어나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우리 인민들에게 맞고 영광과 같은 사랑과 은정을 베풀어주시고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평양강냉이가공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자기들의 일터에 찾아오시어 하늘 같은 사랑과 은정을 베풀어주시고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평양강냉이가공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본사정지보도반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부강조국건설에 이바지한 일군들과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였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명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부강조국건설에 이바지한 일군들과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였다.

부강조국건설에 이바지한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당의 구상과 의도대로 평양강냉이가공공장을 세 세기의 요구에 맞게, 주체성과 민족성이 살아나게 훌륭히 완성하였다.

국가과학기술연구소 실장 김학동, 연구사들인 김진성, 리해광, 리철준은 평양산원 유선중앙연구소와 옥류아동병원 의 원단료보급사업에서 나서는 과학기술 전문자들을 해결함으로써 우리 나라 사회주의보건의료의 우월성을 더 높이 발양시키는데 이바지하였다.

청천강을 보배강으로 전변시키려는 우리 당의 웅대한 대자연개조구상을 높이 받들고 돌격대에 탄원한 남포시교리병원의 의사 권광성, 약방구역종합식당 노동자 최광화는 애국의 구슬땀을 바치면서 물질문명의 지평을 이키지 않았다.

풍성고기공공공장 실장 조신철, 청진철도국 노동자 신광철은 조국의 만년세대를 건

설자들과 함께 일떠세우는 심정으로 발전소건설을 힘껏 지원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명도의 자욱이 새겨진 철령아래에 사파바다를 펼치는데 기여한 일선일군과 돌격대에 탄원한 승려자주변협업소 노동자 김정선은 고산파수능장건설지원사업에서 모범을 보이였다.

당의 대규모과일생산기지건설구상을 받들고 덕천시사회급양관리소 노동자 김순복은 맡은 일을 책임적으로 하면서도 건설자들에게 성의껏 마련한 후방물자를 안겨주어 그들을 로력적위훈으로 불러일으켰다.

대외건설지도국 산하단위 교원 조국성은 건설의 대면영기가 펼쳐지는 시대의 벽찬 승결에 심장의 박동을 맞추며 고산파의 전변을 안아오는데 온갖 지성을 다하였다.

과학기술전담을 전인과학기술인재회실현의 위대한 거점으로 일떠세우는데 이바지한 한남구역 평천구역 북성1동 99인민반장 오현희는 옥성개발전투에서 혁명군대의 위력을 떨쳐가고있는 군인건설자들을

물심쌍면으로 도와주었다.

평천구역 정평동 12인민반 유육순은 새로운 평양정신, 평양속도창조열기로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과학기술전담건설에 많은 건설자재와 물자들을 지원하여 공사속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

당의 과학기술중심사상을 실현으로 만들어갈 마음이고 경총지도국 산하단위 실장 전지혁, 약방구역 정백1동 10인민반 리정애는 과학의 섬으로 전변되는 옥성지역에서 힘입는 경제선동과 원호사업으로 군인건설자들의 전투적사기를 북돋아주었다.

모란봉제1중학교 소년단지도원 김예성, 금성제1중학교 교원 신진, 경흥은하수식료공장 노동자 김수연도 전담건설에 공민적 향심을 바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보내신 감사를 끝없는 감격속에 받아안은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김정은동지께서 소중히 간직하고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해 온갖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갈 열의에 넘쳐있다.

본사기자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별가리아래권도련맹에서 선물을 드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별가리아래권도련맹에서 선물을 드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드리는 선물을

별가리아래권도련맹 부시장 포스파딘 디미트로프가 제19차 태권도세계선수권대회에 참가한 우리 나라 태권도선수단 단장

인 김정호 조선태권도위원회 위원장에게 전달하였다.

본사기자

## 조선로동당창건 70돐경축 준비위원회 여러 나라에서 결성

조선로동당창건 70돐경축 준비위원회 여러 나라에서 결성

조선로동당창건 70돐경축 준비위원회는 조선로동당 창건 70돐을 맞으며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는 다채로운 정치문화행사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이관 드 메타 라파리가 선출되었다.

준비위원회는 10월 10일에 즈음하여 다양한 정치문화행사를 의의있게 조직하기로 하였다.

조선로동당창건 70돐경축 준비위원회는 조선로동당 창건 70돐을 맞으며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는 다채로운 정치문화행사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이관 드 메타 라파리가 선출되었다.

준비위원회는 10월 10일에 즈음하여 다양한 정치문화행사를 의의있게 조직하기로 하였다.

조선로동당창건 70돐경축 준비위원회는 조선로동당 창건 70돐을 맞으며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는 다채로운 정치문화행사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이관 드 메타 라파리가 선출되었다.

준비위원회는 10월 10일에 즈음하여 다양한 정치문화행사를 의의있게 조직하기로 하였다.

## 강철의 령장 김정은원수

국제사회는 무비의 담력과 배짱으로 제국주의자들의 반공과 국익침해를 단호히 짓부시며 사회주의강국건설의 휘황한 매일을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멸의 선군명도를 찬양하고있다.

수리야 디미트로프대학 정치학부 강사장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국제사회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나라의 군력을 철옹성같이 다져 주국과 인민의 안전을 물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굳건히 담보하신 가장 훌륭한 최고사령관으로 칭송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커다란 성과들이 이룩되도록 조선의 군대와 인민을 현명하게 인도하고있다.

그이께서는 김정일명도자께서 창시하고 김정일명도자께서 발전시켜주신 위대한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혁명유산으로 물려받으시고 충직하게 계승발전시키시는 절충한 사상리론의 영재이시다.

그이의 현명한 명도덕에 조선

도이월란드반제연단은 인터넷홈페이지에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께서는 지난 기간 현충명장으로서의 비범한 군사적재지로 선군조선의 영광을 증축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김정일명도자께서 창시한 선군명도의 첫 자욱을 새기신 8월 25일을 선군절로 제정하도록 하시였으며 전군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군건설의 총적임무로 밝히시고 미국의 가중되는 핵위협에 대처한 새로운 전략적로선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전승명도덕적 선군명도덕적이 깃들여있는 수많은 단위들을 끊임없이 찾오시어 전승의 력사, 선군승리의 력사를 더욱 빛내이시고 탁월한 명군술로 조선인민군의 군사기술적위력을 한층 강화하시였다.

스위스조선위원회와 스위스 주체사상연구소는 공동성명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김정은원수님은 조선속도를 창조하신 위대한 명도자이시다.

그이의 명도덕에 조선인민은

인민은 짧은 기간에 세계를 놀라우는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였다.

그이의 선군혁명명도에 의하여 인공지구위성 《광명성-3》호 2호가 성과적으로 발사되고 제3차 지하핵시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그이를 중심으로 하는 조선로동당과 인민대중의 통일단결이 반석같이 다져지고 사회주의 조선의 일일단결이 더욱 강화되었다.

영국선군정치연구회와 영국 주체사상연구소 인터네트홈페이지는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신것은 그이에 대한 조선로동당과 전체 조선인민의 다함없는 존경과 신뢰의 분출이다.

조선의 군대와 인민은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철공같이 뭉쳐 최후승리를 향해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투쟁으로 전진, 전군, 전민을 힘있게 조직동원하신다.

그이의 명도덕에 조선인민은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평생 지켜 오신 자주의 길, 선군의 길을 변함없이 이어갈것이며 조선의 선군혁명위업은 반드시 승리할것이다.

기네군 알마미 싸오리 투쟁영웅 제1공대장은 다음과 같이 격찬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신 때로부터 지난 기간 국제사회는 조선의 군력을 배방으로 다져 주국과 인민의 안전을 물론 세계평화도 완벽하게 수호하시는 절충한 명장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무모한 핵위협과 전쟁책동을 짓부셔나가는 나날에 강철의 령장으로서의 무비의 기상과 담력을 남김없이 과시하시였다.

세계는 앞으로도 강력한 군력에 토대하여 사회주의수호전과 강성국가건설위업에서 빛나는 성과를 끊임없이 이룩해나가는 김정은최고사령관의 모습을 보게 될것이다.

【조선중앙통신】

## 선군은 조선반도평화를 지키는 근본담보

선군의 총대를 높이 추켜들고 반제반미대전에서 변견연승하는 우리 공화국의 현실을 통해 남녘겨레는 선군정치야말로 민족의 존엄을 떨치고 조선반도평화를 지키는 근본담보라는것을 깊이 절감하고있다.

한 통일문제연구사는 자주로 존엄높고 선군으로 위력한 나라가 바로 이북이라고 격찬하면서 자기의 글을 다음과 같이 썼다.

이북을 다스리는 사람들은 누구라 할것없이 자주정치, 선군정치에 안사를 이키지 않고있다.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침해하려는 적에 대해서는 절대로 용서하지 않고 정벌한다는것이 바로 이북의 의지이고 조국의 출한 로기, 나무 한그루도 다치지 못

한다는것이 이북의 신언이다.

이북은 맑고그대로 위대한 자주의 절정이며 난공불락의 성세이다.

부산의 한 퇴직교수는 제자들에게 《이북은 총 한방 쓰지 않고 고도 자기의 막강한 위력과 존엄을 시위하는 특수한 비결을 가지고있다. 이북에는 독특한 정치방식인 선군정치 있다. 선군은 그 어떤 시련과 난관도 이겨내고 자체의 힘으로 번영하는 사회주의강성국가를 일떠세울수 있게 하는 필승의 무기이다. 그 어떤 핏줄에도 끄떡없이 선군의 위용을 떨치고있는 이북이야말로 필승불패의 강국이다.》고 힘주어 말하였다.

《우리 사회연구소의 한 연구

원인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악랄한 반공화국책동속에서 북은 자주권을 지키는 길을 선택하였다》고 하면서 북의 현실을 통해 우리는 선군정치가 미국의 군사적위협으로부터 사회주의의 정치임을 잘 알수 있다. 따라서 북에서 선군정치는 앞으로 계속 강화될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였다.

남녘겨레는 가슴마다에 위대한 백두령장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높이 모시고 자주의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의 길로 변함없이 나아가는 선군 조선의 앞길에는 언제나 승리만이 있다는 신념을 깊이 새겨안고있다.

【조선중앙통신】